

# “보시와 회향 가슴에 새기며

김광호 객원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심리학과)



김광호 교수는 ... 1952년생으로 동국대학불교문화대학원 불교아동심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금화사초등불교학교 교장, 조계종 금화사 신도회장, 조계종 대한불교교사대학 부학장, 금화어린이청소년회 대표를 역임했다. 양산대 사회복지학과,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고 현재 경주 동국대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포교대상 원력상, 민족평화상, 국방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어린이 포교는 불교의 미래입니다. 제 목숨과도 같아요.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부산불교문화원 보리수 불교학교’는 오직 어린이 포교를 위해 마련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불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자재들은 최고로 안전한 재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지요. 그저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20여년 천진불을 위해 보시바라미를 실천하고 있는 김광호 교수(64)를 4월 16일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그의 자택에서 만났다. 남산중에 15억원이 넘는 자비를 투자해 어린이 전용 법당 ‘부산불교문화원 보리수 불교학교(이하 보리수 학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를 통해 새싹 불자를 양성하는 기쁨을 들어봤다.

###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전용 법당을 만든다

5월 말이면 공사를 마치고 6월 초 개원법회 예정인 보리수 학교는 원불 300여 개를 봉안하는 법당은 물론 옥상 놀이터,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법당 안에는 반야심경을 목조에 새긴 부조작품을 후불명화로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보살, 약사여래, 일광·월광보살 등을 봉안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다. “60여 평의 옥상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서 놀이 기구는 무해한 성분의 제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당 부처님도 흉송으로 제작해 학생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했죠. 최고의 불사를 위해서는 최고의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임원으로 일하던 그가 이렇게 어린이 불교 포교에 매진하게 된 것은 20년 전 부산 금화사 불교대학에 다니면서부터다. 당시 주지였던 대안 스님의 강의에 푹 빠져 같은 강의를 6년 동안 반복해서 들었고 녹음까지 해 반복해서 공부했다. 이즈음 되자 스스로 강의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그의 가슴에 가장 남는 단어는 ‘회향’이었다. 어떻게 회향할 거냐는 대안 스님의 질문에 그는 어린이 포교를 떠올렸다. “대안 스님께서 예전에 절 지하에서 한자교실을 열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회향을 한다면 어린이 포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또 교사인 아내와 함께하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에 전혀 경험이 전무했던 어린이 포교를 하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안 스님의 지지로 아내 이향화(58) 보살과 함께 1995년 금화사에서 어린이 포교를 위한 천자문 교실을 열었다. 150여 어린이들이 몰렸다. 하지만 금화사 법당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오니 천자문 교실에 300여 명이 몰렸어요. 결국 금화사 맞은 편 스포츠센터 9층 건물을 하루 15만원 주고 빌려 천자문 교실을 운영했죠. 간식비와 모든 경비를 사비로 감당했어요.”

하지만 어린이 지도 경험이 전무했던 그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은 역부족이었다. “군대에서 소령으로 전역하고 기업에서 근무를 했던 터라 처음에는 애

들을 군대식으로 지도했어. ‘앉아’ 하면 앉을 줄 알았는데 애들이 ‘무서워요’ 하며 울었어요. 집에 갈 시간인데 가라고 하면 가지 않고 놀다가 넘어져 다치고 부모가 와서 따지고 정말 정신이 없었죠. 물론 건물체와 간식비 등 모든 운영비를 제 혼자서 해결해야 하니 경제적 부담도 컸죠. 6개월만에 천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됐어요.”

의욕만 너무 앞섰다는 것을 깨닫고 재정비에 들어갔다. ‘대한불교 어린이 연합회’를 찾아 교재와 정보를 찾아 교사를 모았다. 그리고 수용 인원을 조절해 금화사불교초등학교를 새롭게 개설하고 물심양면으로 학생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 엄격한 규정과 숙선수범이 교육의 원칙

그는 어린이 범죄 구경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불교교리, 문화유산답사, 다도 및 해외 탐방 및 산사체험 야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어린이들이 불교적 지식과 문화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내실을 다졌다. 또한 학습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금화사 한자교실 열며 어린이 포교 시작  
금정구에 어린이 전용 법당 15억 불사 중  
6월초 개원예정... 최고 시설 위해 노력  
문화유산답사, 다도 및 해외 탐방도

늦깎이 학생으로 불교심리학 공부에 매진  
태양강학회 설립 어린이 포교와 부모교육  
문화 포교 위한 서적 20권 집필활동  
앞으로 20년 더 어린이 포교 매진 발원

위해서는 부인과 함께 직접 학습지도도 했다. 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쉽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니 불교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불교유적지 문화탐방은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지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와 관련이 있으니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 중 하나죠. 또한 불교 4대 명절 같은 경우는 사물놀이 시간에 자진모리와 휘모리 장단에 맞춰 외우게 했어요. 예를 들어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 날은 48 이렇게 장단에 맞춰 가르치면 아이들이 쉽게 기억을 하죠.”

인성교육에도 큰 비중을 둔다. 저출산 시대인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홀로 자라다보니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는 엄격한 훈육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다.

“3회 이상 무단결석하면 퇴교입니다. 예외가 없

죠. 냉정하게 가르쳤습니다. 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으면 바로 지붕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럼 걸어서 집으로 가야 하니 다음부터는 알아서 정확하게 정돈을 해놓아요. 욕을 하거나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복도에 나가게 해 축비를 쳐서 스스로 참회할 수 있도록 했죠. 또 추운 겨울에 절 마당에 나가 108배를 시키기도 했죠.”

이런 스펙타클 교육은 물론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이들도 김 교수를 따랐고 단 한 명의 결석자도 없었다.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우선순위를 불교학교에 두었다. 이러니 동네의 모든 문제아들은 김 교수에게 보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훈육방식은 소문이 자자했다. 급기야는 일부러 그를 찾아오는 부모들도 늘었다.

“입에 욕을 달고 살 정도로 언어 습관이 좋지 않은 학생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현지 교감이었는데도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저를 찾아왔죠. 그 아이에게 새벽 6시에 어금없이 저희 집에 오도록 했어요. 저는 먼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이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학생이 들어오면 아무 말 없이 108배를 시켰어요. 한 달이 지나자 힘들다며 말 잘 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말을 잘 들겠다는 것은 단지 그냥 반감할 키울 거라는 판단에서죠.”

그렇게 학생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 100일 기도를 마쳤다. 그제서야 학생은 평평 울면서 참회를 했다고. “진심으로 선생님과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 뒤 학생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스승의 날에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어 저와 부모님께 극진히 대접하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전교회장을 맡을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으로 변했죠.”

###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가르치다

물론 이런 엄격한 교육을 위해서는 스스로 숙선수범하는 것도 그만큼 당연한 철학이다. “당시 회사일로 일본에 출장을 갔었는데 토요일 수업 때문에 다시 한국을 들어왔다 일본으로 나갔죠. 아이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하겠어요? 제가 그만큼 해야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원칙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그의 지도를 따랐던 학생들에게는 상을 주며 격려했다. 일년 동안 개근한 학생들에게는 매년 심가품, 태극 등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다. 엄하게 수업하는 만큼 잘 따르면 보상을 해주고 격려하며 이끄는 것이 그만의 원칙이다.

부모교육도 그가 중요시 여기는 과정 중 하나다. 학생들의 부모로 구성된 자모회를 운영, 자녀가 잘 못하면 부모도 함께 훈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부모들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 문제는 반드시 가족 문제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 문제 아동이란 말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가족상담을 하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 위기에 놓인 부부들 상담해 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가족 상담을 하게 되었죠.”

이런 그의 교육 철학은 끊임없이 연구하며 노력한

##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 20년 새싹 포교에 매진



부산 금화사에서 19년동안 어린이 포교를 담당한 그는 200여명의 제자를 배출해 내었다.



<엄마 따라 절에 가기>, <국보·보물 문화유산을 찾아서> 등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해설서 및 불교 관련 지식의 백과사전 등 20여권을 책으로 펼쳐냈다.



지난해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친견.



태영장학회 설립 매년 개근 학생들에게 해외탐방을 보내고 있다.



홍승으로 제작한 불상. 학생들에게 친근한 모습이 되도록 제작되었다.

결과다. 그의 나이 예순이 넘어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 아동심리치료학과에 입학했다. 매일 밤새워 공부해 수석으로 졸업했고 상담심리 1급·미술 심리 1급 자격증에 복지사 자격증도 따다. 이후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동국대 객원교수로 활동중이다.

어린이를 위한 그의 노력은 단지 교육으로 그치지 않았다. 포교를 위해 발간한 책이 20여 권에 달한다. <엄마 따라 절에 가기>(해성출판사), 그의 <국보·보물 문화유산을 찾아서>(해성출판사) 등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해설서 및 불교관련 지식의 백과사전을 책으로 펼쳐냈다.

### 시련 극복하고 어린이 포교 위한 새로운 다짐

물론 이런 그에게도 고비는 있었다. 20년 가까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왔던 금화사를 나와야 했으니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신임 주지스님이 어린이법회를 반대했어. 그동안 졸업한 제자만 200명이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금화사를 나온 이후에는 새로운 법당을 알아봤고 불사가 진행될때까지 저희 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할 뿐입니다." 앞으로 조계종단이 어린이 법회를 위해 더 많은 관심

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그는 강조한다. "제발 종단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회관을 만들어 어린이 포교에 앞장 서주길 바랄 뿐입니다. 어린이가 없으면 불교의 미래도 없습니다. 종단에서 어린이 불교 회관을 각 시도에 하나씩만 만들어 수행을 겸한 교육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어린이 포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700년 한국불교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살의 좌우명을 '회향'과 '보시'라 말하는 그는 서재에 걸려 있는 청담 스님의 서예 글씨인 '보시'를 보며 마음을 되새긴다고 했다. 이런 좌우명에 따라 2006년에는 '태영 장학회'를 만들었다. 조부인 김정태 씨와 부친 김영욱 씨의 이름에서 따온 '태영장학회'는 매년 천만원의 장학금 지급은 물론이고 어린이 포교를 위한 자모회 교육, 어린이 포교를 위한 해외여행 지원 등도 겸하고 있다.

김 교수의 조부는 3·1 운동의 최연소 참가자로 19살 때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부친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을 위한 '전국유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를 거쳐 최근까지 상임고문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증조부는 자신사업으로 고종황제에게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조상님들의 업적을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나중이라도 그분들 뵈기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어머니와 외할머니 생신이 음력으로 4월 8일이예요. 어머니가 창원 성주사에서 기도해 태어난 자식이 저예요. 아버지도 불심이 대단하셨죠. 그런 집안 내력이 제가 불교 일을 하고 있는 힘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앞으로도 세상과 나누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죽을 고비를 4번을 넘겼어요. 지리산에서 조난도 당했고 설악산 흔들 바위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뻔하기도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지금은 살아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해요. 어린이 포교를 하라는 부처님의 뜻이죠. 더 이상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여년 어린이 포교에 모든 것을 던졌다면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 시간만큼은 어린이 포교에 매진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나중에 저 세상으로 가서 부처님을 뵈면 부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최고의 어린이 포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노력할 것입니다."

부산=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 전법일기

### 조계종 스님의 태고종 사찰과의 인연

저녁 7시 목탁소리가 울리고,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는 소리가 관악산 입구에 울려 퍼진다. 매주 수요일 관악산 성불암 법당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는 이들이 모인다. 1000일 정진을 서원한 '선우회' 사람들이다.

선우회의 첫 시작은 5명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셨던 녹야원, 오비구의 숫자와 똑같다. 법을 이르라는 뜻의 '법찬'이란 법명을 주신은 사스님의 혜안이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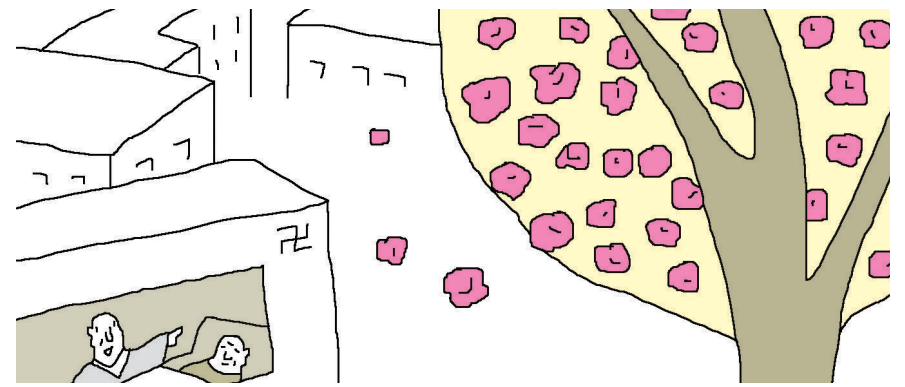
도심 속 작은 암자나 포교당은 소수의 신도들로 사찰을 유지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성불암은 더욱 어려운 환경이었다. 도량 자체가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이 아닌 '한국불교 태고종' 사찰

안스럽다. 더구나 치매는 초기에 발견은 했지만 점점 나빠지시니 내가 잘 모시지 못해 그런 것은 아닌가 늘 죄송스럽다. 그나마 공양 잘 드시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모름지기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 응당 그 은혜를 빛으로 여기고 베풀어주는 은혜에 대한 갚음은 출가를 떠나 인간 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내가 지금 조계종 스님이란 이유로 '성불암'을 떠나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포교를 하면 더욱 잘 할 수도, 수고롭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을 떠나면 이 곳 스님을 누가 돌보줄 것이며, 성불암이라는 도량이 유지 될 수 있을까?

비록 스님이 가끔 치매 초기에서 약간 진전된 상태를 보일지라도 '거동이 불편



그림·박구원

인 까닭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다. 사찰 유지에도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인연있는 이들은 의아해하면서 묻는다. 왜 조계종 스님이 태고종 사찰에 머물면서 절 살림을 살고, 10년을 훌쩍 넘긴 세월 동안 사찰 보전을 위해 있느냐고, 동국대와 정각원 등에서 받은 보시금으로 왜 성불암의 재정을 감당하고 있느냐고.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인연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출가를 하기 전 인연 때 해인사로 출가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동국대로 진학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셨던 분이 바로 지금 성불암에 계신 스님이시다.

비록 종단은 다르지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성불암 스님의 자비심은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스님의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그 즈음부터 절 살림을 온전히 맡아 해 왔으니 성불암과 인연을 맺은 세월이 십수년이다.

현재는 혼자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 되셔서 주위의 도움 없이는 환자용 침대를 벗어날 수 없고, 대소변 역시도 불가능하니 결에서 보기에 너무나

하고 대소변을 모두 돌보줘야 하는 스님을 두고 간다면 이 작은 사찰에서 얼마나 제대로 간병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물론 '해인사'로의 출가는 승려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특히 해인사는 부처님 법을 모셔놓은 법보종찰이기에 특히 그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있어 계엄을 피우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크다. 지금 성불암 노스님을 모시듯 머지않아 부족한 나를 자비심으로 탁마해주시는 사스님과 큰스님들의 은혜를 반드시 갚을 날이 오리라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성불암'에서 인연법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늘 그렇듯 신심있는 불자님들과 인연이 더해졌다. 이들과 천일 동안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의 원을 세웠다. 이러한 원을 함께 해주신 분들과 더불어 '선우회(禪友會)'를 결성하게 되었다. 선우회와의 인연은 다음 편에 전하도록 하겠다.



법찬 스님 (서울 성불암 주지)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 붓다북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